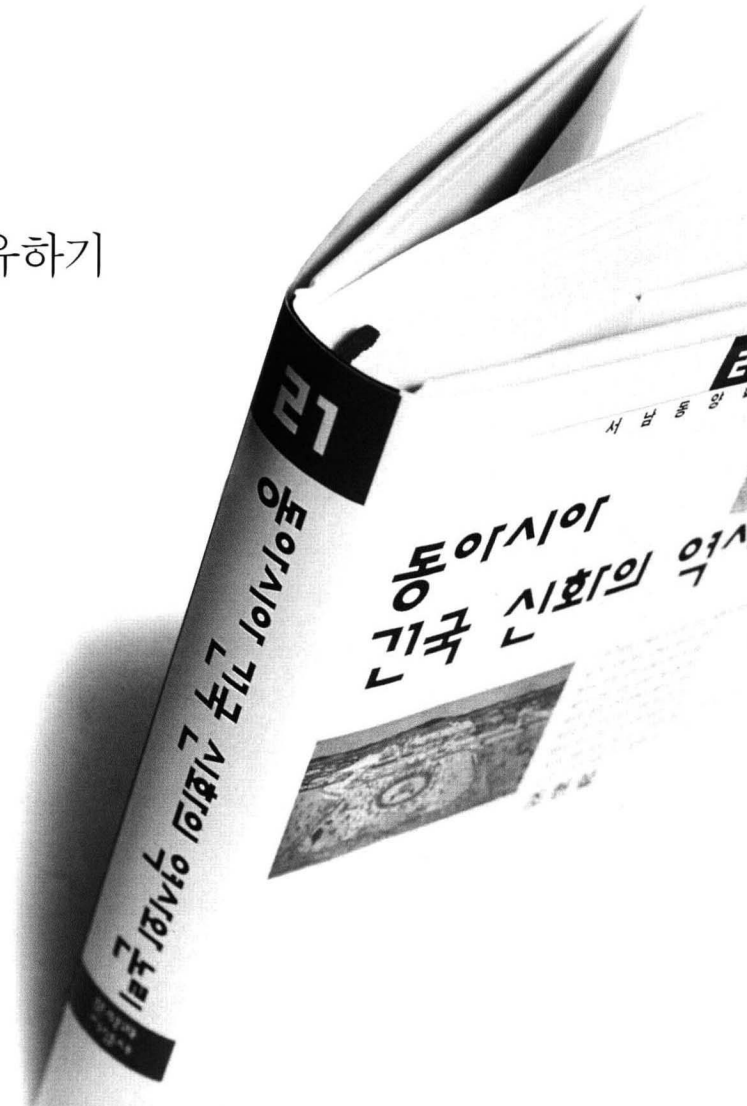


비교연구를 통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 사유하기

◎ **조현설** 1998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교 방문학자, 베이징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이화여대 중문학과를 거쳐 현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남성 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동아시아 창세 신화의 세계 인식과 철학적 우주론의 관계〉 등이 있고, 1998년 제8회 나손羅孫학술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조현설 지음/문학과학지성사/484쪽/값 22,000원

무슨 경천동지할 저작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내 책을 말한다’고 메가폰을 들러니 민망하다. 정실비평을 하자니 낮이 간지럽고 날 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자니 책 속의 문장들이 소리를 지를 것 같다. 그저 한 권의 책에 대한 출간의 이력서를 간단히 작성하는 것으로 ‘내 책’의 골간을 소개하려고 한다.

필자가 건국신화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건국신화는 대단히 낡은 텍스트였다. 그것이 ‘낡았다’는 것은 이미 100여 년 동안 기백 편의 연구물들이 퇴적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더 이상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기 힘든, 따라서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비껴나 있는 연구 대상이었다는 뜻이다. 낡은 텍스트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방법의 전회가 필요했다.

방법의 전회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새로운, 혹은 다른 방식의 질문으로부터 온다. 필자는 어찌 보면 이미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건국신화 자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건국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건국신화는 전승과정에서 어떻게 재편되는가? 건국신화가 형성되고 재편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건국신화는 왜 존재하는가? 필자의 질문은, 요컨대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의 일반원리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책은 이런 일련의 물음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아는 한 이런 질문과 답변은 이전에 체계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비교연구는 필연적이었다. 원리는 서로 다른 자료들 속에서 보편성으로 추출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국신화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고, 나아가 티벳·몽골·만주·한국·대하·남조·대리 등의 건국신화를 대등한 관점에서 비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련의 비교과정을 통해,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의 일반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고안한 이론이 ‘신격기능체계론’이다.

신격기능체계론의 핵심은 시조신화는 2기능, 건국신화는 3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국신화는 시조신화의 2기능체계가 3기능체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시조신화는 집단의 기원을 말하지 권력의 기원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의 신성한 근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이념적 정당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국신화는 권력의 신성한 근거를 담론화한다. 여기서 건국신화는 건국주를 지상에 보낸 파견자 기능을 수행하는 신격을 요구한다. 각 민족의 최고신은 파견자로 다시 등장하고, 건국신화의 3기능으로의 기능적 분화는 여기에 실마리가 있다. 예를 드는 것이 이해의 첩경일 것이다. 고조선 건국신화에는 환인·환웅·단군이라는 세 신격이 등장한다. 여기서 환인은 최고신으로 파견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환웅이나 웅녀를 시조로 모시던 집단의 시조신화에서는 없던 기능이다. 고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성의 근거로 파견자 환인이 새로 설정되면서 환웅과 웅녀는 시조신화의 주인공이었다가 건국신화의 중개자로 기능 전환을 이룬다. 이들은 신성혼을 통해 지상에 건국주를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격들인 것이다. 단군은 건국을 이루는 존재라는 점에서 실현자 기능을 가진 신격이다.

요컨대 건국신화는 파견자를 통해 최고신의 위대한 뜻을 천명하고, 중개자를 통해 새로 구성된 집단의 혈연적인, 혹은 이념적인 동질성을 구현함으로써 집단을 통합하고, 실현자를 그 통합의 표상으로 내세우는 담론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 표상을 중심으로 하나의 동일성을 주조하려고 기도한다. 개인은 끊임없이 시조신화로 돌아가고, 거기 머물려고 하지만 국가는 개인을 부단히 건국신화라는 동일성으로 호명한다. 고대의 제천의식이나 천명론 등은 그 호명의 장치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건국신화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고 3기능 체계는 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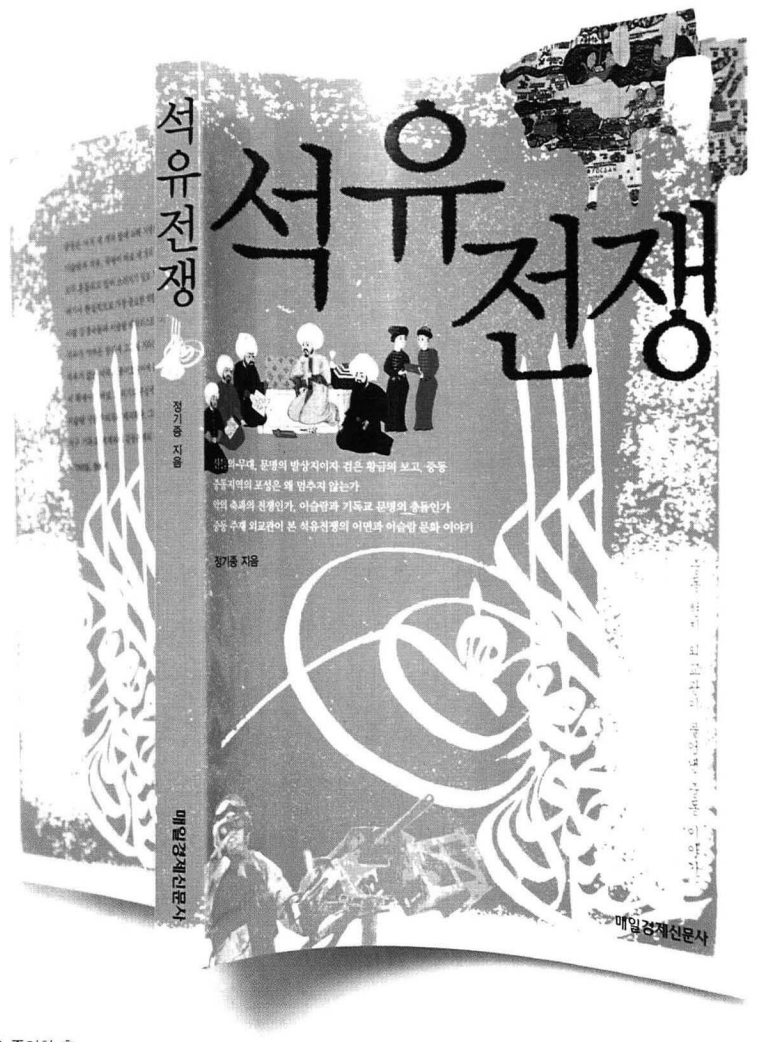
이런 원리의 실현을 거쳐 문헌에 정착된 건국신화는, 그러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 건국신화들은 문헌전승 과정에서 일정한 변형을 겪으며 재편된다. 변형의 주원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불교·이슬람교·유가사상, 혹은 근대 이전의 민족주의와 같은 지배적 이념에 있다. 이들 이념이 주체들의 욕망에 따라 최고신의 얼굴을 바꾸거나 신격을 제거하거나 신성담을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대의 건국신화를 재편하게 되는데 이때 신격기능

체계는, 대체·융합·확장의 방식으로 재편될 때는 유지되고, 축소의 방식으로 재편될 때는 해체된다. 예를 들어 불교가 천신을 환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체형 재편이고, 유가의 사상이 환인이나 환웅을 부정하고 단군만을 내세운 것은 축소형 재편인데 전자에서는 신격기능체계가 유지되지만 후자에서는 해체된다는 말이다.

필자가 이 책에서 이론화한 신격기능체계론은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본질을 드러내고 건국신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이론은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유구, 혹은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민족들의 건국신화에 적용하여 논리를 좀더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작업에 관련 학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근래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신격기능체계론이 제시한 시조신화와 건국신화에 각각 대응되는 2기능, 3기능 체계가 단지 건국신화를 이해하는 도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2기능과 3기능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 심리구조나 사회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즈음의 화두로 붙들고 있다. 신격기능체계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모자관계에서 부자관계로의 전환과 관계 있으며 남성지배와 무관치 않다는 것, 3기능의 하나인 파견자 기능은 팔루스와 유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 등등이 화두의 편린들이다. 편린들을 보배로 꿰기 위한 독서와 사유가 또 필자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단군 민족주의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한 민족의 건국신화가, 그리고 집단의 표상인 건국영웅이 근대 민족주의의 에너지로 통해 되살아나고, 앞으로도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3기능체계를 통해 드러난 건국신화의 이데올로기적 본질 때문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건국신화에 관심을 갖고 그 보편성을 탐구하는 이유는 이런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을 사유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



《석유전쟁》 정기중 지음/매일경제신문사/284쪽/값 10,000원

중동의 축, 석유·왕정·이슬람

◎ **정기중** _ 동국대학교 행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외교안보 전공)을 졸업한 후 1978년 외교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카이로 대학에서 아랍어 및 중동지역학 연수 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오사카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외교통상부 중동과 서기관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동시다발 테러가 벌어지고 텔레비전 뉴스에 빈 라덴과 알 카에다가 등장하자 딸 아결이가 '아빠가 쓴 책에 나오는 사람이다' 하고 놀라던 기억이 난다.

석유전쟁은 1997년 8월부터 2000년 2월 레바논에 근무하고 있던 당시 초안을 잡고 그 후 일본 오사카에 근무하는 동안 자료를 덧붙여 쓴 책이다. 나름대로 중동의 위기상황을 써 보려고 했다.

중동을 지탱하는 세 가지의 축인 석유와 왕정 그리고 이슬람을 통해 중동이 현재 세계 속에서 역할하고 있는 부분을 모자이크해 보려고 한 것이다. 석유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인용하려 했고 성경과 코란은 두 권의 책을 펼쳐 놓고 비교하면서 썼다. 이 책이 왜 의미가 있는지는 현재의 중동상황을 설명함으로 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이라크 전쟁이 21일만인 4월 9일 바그다드 함락으로 일단락되었다. 미국은 향후 잠정기간 동안 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라크전은 종전 후가 더

문제일 것이다. 여러 나라의 중동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아랍의 반감이 증폭되어 테러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동에는 팔레스타인 문제, 쿠르드 문제를 비롯해서 뇌관과 같은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를 바탕으로 미국식 정치질서가 중동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것인지 아니면 시리아, 이란과 같은 반미국가 사이에서의 압력으로 신신타라크 정권이 곤경을 겪게 될 것인지 아직은 모를 일이다.

현재 이라크의 대외부채규모는 총 1,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이라크전의 전쟁배상금과 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에 입힌 피해보상금까지를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져 다소 채무조정을 거친다 해도 1,75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일일 원유생산량인 300만 배럴로 연간 170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600만 배럴로 증산한다고 해도 연간 300억 달러 정도의 수입밖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구성될 신정부로서도 2,360만 명이나 되는 인구의 경제

“중동전쟁의 불길을 당기는 인계철선은 명분과 실리가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슬람과 유대교라는 아랍과 이스라엘 두 민족 간의 종교충돌이 분쟁을 촉발시키고, 이것은 국제 석유가의 인상과 연결될 것이며, 여기서 벌어지는 다국적 석유회사와 아랍 산유국들의 실리가 어우러져 분쟁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다.”
(237~248p '언제, 어디서, 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생활을 지탱하기는 힘들울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 곤경이 심해지면 이라크인들은 패전의 상처와 아울러 미국에 대한 증오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식 문화와 자본주의가 중동에 뿌리내리기도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10여 개 대 이라크 파병국 중 파병병력 수가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제4위국(675명)이 된 우리나라도 이라크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파병의 의미가 공병과 의무병 등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을 돕고 이라크인들에 대한 의료지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사우디에서의 대형테러사건을 시발로 연이은 모로코에서의 테러, 그리고 낮익은 이스라엘에서의 테러 등 중동에서의 테러가 심해지고 있다. 알 카에다와 미국과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테러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죄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테러를 막는 것은 단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마도 테러의 원천적인 방지는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 테러범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인류역사에는 한 사람에 의해 역사가 바뀐 예가 종종 있다. 1차대전을 발발시킨 사라예보의 테러리스트가 그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발발의 원인을 제공한 빈 라덴도 그 유예 들 것이다. 어쩌면 창세기 때 신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던 이브는 역사를 바꾼 최초의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입힐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작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능력이 커져 버렸다.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이 범지구적 규모의 재앙마저도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변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이 국가라든가 사회 집단이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개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더 커졌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썼다.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대로 다시 세계대전이 터지거나 오염된 환경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 하는 그런 세계가 다음 세대에 닥치게 된다면 비참한 일이다.

나는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막연한 낙관론은 비관론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이 말하는 소위 거짓 선지자의 말은 경계해야 한다. 어차피 잘될 것은 그대로 두어도 잘될 것이다.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비관적 관측이 가능한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마땅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중동에는 종교와 석유라는 인류와 뗄 수 없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중동에서는 아직도 신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어서 매일 하루 다섯 차례 기도하고 신에 대하여 생각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유대인은 책의 민족이고 무슬림은 코란의 민족이다. 이런 면에서 중동은 어쩌면 아직까지도 스펠바운드 Spell-Bound 된 지역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동이나 현세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덜 민감한 상태인 것 같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나누고 싶었다. 우리가 단군 민족주의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한 민족의 건국 신화가, 그리고 집단의 표상인 건국영웅이 근대 민족주의의 에너지를 통해 되살아나고, 앞으로도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3기능체계를 통해 드러난 건국신화의 이데올로기적 본질 때문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건국신화에 관심을 갖고 그 보편성을 탐구하는 이유는 이런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을 사유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